



신재생에너지 속도조절 속 ‘수소경제’ 관심

도, 제6차 지역에너지계획 확정… 목표량 감축 조정
정책과제에 잉여전력 활용 그린수소 생산 실증 포함

제주특별자치도가 ‘중단없는 신재생 에너지 개발보급’ 목표 속에서 신재생에너지 확대 계획 속도조절에 나섰다. 민원과 환경영향, 전력계통 한계용량 등의 보급여건이 여의치않은 현실적 문제를 반영해 풍력·태양광 발전 보급목표 계획을 축소 조정한 것이다. 특히 문제인 정부의 주력 정책 중 하나인 ‘수소경제’ 육성 움직임을 본격화해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위원회 심의가 완료됨에 따라 제6차 지역에너지계획(2020~2025)을 확정,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역에너지 계획은 에너지법 제7조에 따라 5년마다 5년 이상을 계획 기간으로 시·도지사가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수립하고 있다.

제6차 지역에너지 계획은 카본프리아일랜드 2030 목표 달성을 위해 ‘탄소없는 섬 제주 2030’ 실현을 위한 전반기 대도약 추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화석연료의 공공적 관리 ▷중단 없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전기차 보급 지속 및 이용 효율화 ▷지역특화 신규사업 발굴 ▷이행·평가·환류 체계 마련이 5대 목표로 제시됐다. 도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올해부터 2025년까지 6개 분야 44개 세부사업에 3조977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에서 202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신규 보급목표량은 761.9MW(풍력 445MW, 태양광 291.2MW, 기타 25.7MW)로 조정(누적용량 1283.6MW)됐다. 앞서 제주도가 지난해 수립한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 수정보완 계획’에서는 2030년까지 4085MW 보급목표 속에서 2025년까지 보급계획은 약 1865MW(태양광 865MW, 해상풍력 785MW, 육상풍력 206MW 등)였다.

특히 도는 이번 계획에 주요 정책과제로 계통한계 용량 증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잉여전력을 활용한 수전해 방식의 그린수소 생산(P2G: Power to Gas) 시범실증(25MW) 사

업을 추진한다.

현재 도는 올해 산자부의 R&D 공모 계획에 대비해 실증 및 연관산업 사업 육성 계획을 세우고 있다. 실증부터 상용화까지 향후 3개년 사업에 300여억원이 넘는 국비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 기관 공모에서 고배를 마신바 있어 실현가능성은 미지수다. 수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사업계획의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도는 제주에너지공사가 사업주체가 되는 ‘재생에너지 연계 수소 생산 실증 및 연관산업 사업 육성’ 사업(2020~2023년·비용 378억(국비))을 추진한 바 있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도-JTP,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본격화

시범사업 참여기업 공모
자원순환·환경보전 기대

전기차 배터리의 활용능력을 키우기 위한 사업들이 본격화되고 있다. 수명을 다한 전기차 배터리는 대표적으로 에너지 저장장치나 무정전 전원장치 등에 활용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테크노파크(JTP)는 ‘전기차 재사용 배터리 활용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22일까지 접수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성능 평가를 마친 재사용 배터리를 기업들에게 제공해 활용가능성이 높은 시제품을 개발,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으로, 공모 대상 기업은 2개사다.

선정된 기업은 전기차 1대 분량의 팩 또는 모듈 형태의 배터리와 연구

개발을 위한 비용으로 최대 95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발 제품에 대한 활용성과 사업가능성 등이 뛰어난 경우 시범 운영을 위한 배터리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악화된 기업 상황을 감안해 기업 부담금은 총 사업비의 10%로 낮추고, 분할 지급되는 지원금의 초기 비중을 70%로 높였다.

신청 대상은 제주도에 사업자등록이 된 기업으로 제한하며 사업 수행 기간은 약 6개월이다. 관련 분야 지역산업의 육성을 위해 시범 운영을 통해 확보된 배터리 상태 정보 등은 향후 5년간 제주테크노파크와 공유해야 한다. 사업신청자는 관련서류를 작성해 제주테크노파크 제주산업정보서비스(http://jeis.or.kr)로 제출하면 된다.

백금탁기자

제주시 원도심 활성화
유희공간 건물주 모집
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부성현)는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도시재생 상생협약’에 동참할 유희공간 건물주(임대인)를 이달 22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공모는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지역 내 건물주와 경제주체들의 자발적 협력을 통해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상권이 자생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상생·협력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도시재생 상생협약은 임대료 안정화와 상권활성화를 취지로 제주도-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임대인 간 체결하게 된다. 임대료 인하(시세 대비 20% 이상 권장)와 임대료 인상률 연 5% 이내, 임대기간 5년 이상 유지 보장 등 임대차보호법 준수 등의 의무사항을 조건으로 한다. 상생협약을 체결한 건물주는 향후 원도심 유희공간 DB 구축을 통한 홍보, 도시재생 창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한 사업자 매칭 등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신청서는 도시재생지원센터 홈페이지(www.jejuregen.org)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도시재생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 727-0617. 진선희기자



대파 수확하는 농촌 맑은 날씨를 보인 13일 제주시 애월읍 한 밭에서 농민들이 수확한 대파를 다듬고 있다.

이상국기자

보리 수확 눈 앞… 비계약물량 처리 ‘난항’

농협 계약물량대비 2000t 초과 예상… 중앙회는 추가 구매 난색

올해산 마늘에 이어 2020년산 보리도 수확철을 앞두고 계약물량 초과분에 대한 뾰족한 유통 대책이 없어 농협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가을장마 및 태풍 피해의 영향으로 재배 면적은 대폭 늘고 생육기 기상 호조로 작황도 좋아 계약물량 대비 2000t 이상 초과 생산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13일 농협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보리 주산지 농협인 제주시·조천·한경농협 조합장과 농협제주지역본부 관계자들이 농협 중앙본부를 찾아가 주정용 보리의 추가 구매를 요청했으나 주정용 보리의 최대 수요처인 주류산업협회가 2023년 분까지 쌓여 있는 보리 재고로 추가 구매에 난색을 표했다.

최근 2년 동안 전국적인 보리 작황 호조로 계약재배 초과 물량에 대

해 농협 중앙본부, 중앙정부, 지자체 등의 지원을 받아 특별 구매를 추진해 왔으나 재고 처리가 부진한 상황에서 주류산업협회에서는 더 이상 추가 구매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농협제주지역본부 관계자는 “계약재배 초과물량에 대해 사료용, 잡곡용 등 다각적인 유통 처리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고대모기자

제주형 일자리 정책기반 통계 8월 완료
노동력·사업체·일자리등록 등 3가지 자체조사해 활용

제주형 일자리 정책기반 통계 개발이 빠르면 오는 8월 완료돼 본격 운영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2월부터 예산 1억원을 투입해 2개년 사업으로 전국 최초로 일자리정책 기반 통계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당초 지난해 당해년 사업으로 완료할 예정이었지만 최소 2년간의 비교통계를 위해 사업기간을 2년으로 연장했다.

개발 중인 통계는 모두 3가지로 지역별 고용 조사(통계청),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고용노동부), 전국 사업체 조사(통계청) 등이다. 그러나 현재 일자리 지원에 필요한 이들 국가통계는 있지만 제주지역 일자리 정책에 필요한 세부통계는 부족한 실정이다.

도는 이에 따라 호남지방통계청과 협약을 맺고 빅데이터를 활용해 제

주형 일자리 통계를 개발하고 있다. 사회보험료와 과세자료 등 총 18종의 빅데이터를 통해 노동력 등록통계, 사업체(생멸) 등록통계, 일자리 등록통계 등 공표수준을 읍면동 단위까지 세분화하는 통계를 개발하고 있다.

노동력 등록통계는 사회보험, 과세자료 등 6종의 자료를 활용해 노동공급, 고용 구조 및 인력자원 활용 정도, 고용정책의 입안 및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사업체 등록통계는 10종의 자료를 통해 사업체의 신생, 소멸, 생존율 등을 파악해 지역사업체의 효율적인 기술, 재정 및 창업지원을 위한 근거자료로 쓰일 전망이다.

일자리 등록통계는 18종의 자료를 기반으로 일자리·사업체(기업체)의 정보 및 종사자와 사업체를 연계한 통계를 제공할 계획이다.

백금탁기자

도로명주소 길라잡이 제작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로명주소 길라잡이’ 1000부를 제작해 홍보 및 교육 자료로 활용한다고 13일 밝혔다.

책자에는 도민들의 주소생활 편의 증대를 위해 기존에 제작한 안내지도에 새롭게 개발된 지역의 도로명

추가 및 변경 도로명 등을 추가 반영했다.

길라잡이에는 도로명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을 비롯해 관광지, 오름, 올레길 등이 수록돼 있다. 책자는 시청 종합민원실과 읍면동사무소에 배부·비치해 도로명주소 도민 홍보용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태운기자

작보편찬에 따른 자료제출안내 공고

우리종친회에서는 1989년 기사보 발간 이후 30여년 세월이 흘러 이후 출생한 후손들이 결혼하여 자녀를 두었거나, 30세가 넘었는데도 작보에 미 등재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 돌아가신 종친들도 물론도 묘지 소재지 등도 미등재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2016년부터 작보편찬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료를 요구하고 있으나 지금까지도 일부 종친들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작보에 누락될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작보는 대부분 한글로 번역되어 누구나 쉽게 이해 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어디서나 편히 접할 수 있습니다.

2020년 8월 작보발간 예정이오니 모든 종친들이 등재될 수 있도록 5월 30일까지 자료제출에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준비서류

- 기존 작보기재사항 변경내용(수기)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사본)

추천종친 자격요건

- 기문을 빛낸 자랑스러운 종친 또는 국가유공자 및 주변에서 추천하고 싶은 조상 또는 종친(돌아가신 분이나, 살아계신 분)
- 도움을 주신 자랑스러운 종친 (희망자에 한하여 사진, 이력, 학력, 경력, 상훈 등) 제출.

- 접수처 : 도 종친회 사무실 내 인방종친회
- 주 소 : 제주시 천수로 44 - fax : 064-722-4139
- E-mail : dongo0923@naver.com
- 연락처 : 종 친 회 장 김 경 민 010-8466-3302

편찬위원장 김 동 오 010-9458-0899

김해김씨좌정승공파 인방종친회

黃氏 濟州道宗親會 定期總會

庚子年 晩春의 계절을 맞아 宗親 여러분의 健勝을 祈願하며, 今番 第28次 黃氏 濟州道宗親會 定期總會를 다음과 같이 갖오니 많은 參席 부탁 드립니다.

(周邊 宗人에게도 널리 알리어 參席 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다 음

- 日 時 : 2020년 5월 16日(土) 午前10:30
- 場 所 : 비원가든 3층연회장
(한라수목원 입구, ☎ 064-712-8899)
- 參加會費 : 宗親 1人當 20,000원(家族同伴 歡迎)
- 連絡處: 회 장 황충남 (010-3698-5600)
사무국장 황성택 (010-3696-8012)

※ 個別 通知는 省略함.

黃氏濟州道宗親會
會 長 黃 忠 南

해외·육지 전문여행사

여행의 멋과 맛, 재미
모두 준비했습니다.

특가진행

6월~10월 까지

대형우등버스 1일 40만원 부터~
중형우등버스 1일 20만원 부터~

여행품질과 가격비교
자신있습니다.

육지 전세버스 보유업체

미도항공·미도투어

위치 : 제주시 용담1동(오라오거리)

☎713-1951

상당 유옥 중 010-5015-1951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州 리모델링

辛一祚

누수방지 가식, 청진가식 수도매관 복물청소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 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 /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 지붕개방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불박이장 / 싱크대 / 신발장 / 도배 / 장판 / 물당 시공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문의 064.742.6234
010.7599.6234